

순천시 민선 6기 공약사항 7대분야 73건 최종 확정 발표

구석구석 복지 살피고 경제 살린다



생태관광 교과연계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순천시가 민선 6기 시정목표인 '30만 가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1일 '공약 멘토'와 '공약평가단' 28명을 위촉했다.

그동안 시는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1차 검토한 뒤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지난 7월 31일 열었다.

1차 검토된 실천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 재원투자 효과성, 공약멘토와 평가단 의견 등 분야별 심도 있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을 11월에 확정했다.

시는 향후 공약 추진상황과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하고, 공약 사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가 우선=순천시는 구석구석 전달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10건의 공약지표를 정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생계 보장, 정부지원 못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을 2018년까지 200가구로 늘린다.

현재 사용중인 노인회관이 건물 노후 및 협소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신축이 필요하여 2016년 8월 개관을 목표로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 공약 멘토·평가단 28명 위촉

생활임금제 도입해 생계 보장 정원산업 활성화로 경기 부양

원도심 빈 건물 창작공간 활용 농업인 월급제 대상 확대키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창립총회.

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상담, 취업 센터를 운영한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만정원 활용한 경제 활성화=순천시는 정원경제 분야로 순천시의 주요 생태와 문화를 연계하고 교과연계 체험학습을 통한 대한민국 제1의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 2018년까지 2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정원문화 발상지로 정원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2016 순천만 국제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습지관련 국내외 회의 등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ICE 관광 산업 육성, MICE 산업 관련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를 살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

들어가기 위해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주택도시 가스 공급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2016년까지 동천 지구간에 강변로 벽화 전시관 조성, 순천만과 도심을 잇는 생태회랑 '그린웨이'도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과 교육이 꽃피는 순천=문화교육 분야는 국제이해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리더양성을 위한 순천학생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신대지구 아파트 공동시설 활용 평생학습 공간을 설치하고 '해피콜 강좌'와 행복 학습센터 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 인성체험 교육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 학생승마 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순천만정원과 연계한 체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코에듀테인먼트'도 2017년에 개관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빈 건물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을 2017년까지 16개, 신대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신도심 독서실도 2016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농상생분야는 16건의 공약도 추진한다.

FTA 대응 일환으로 관내 수도작 농가들부터 시행하여 호응이 좋은 농업인 월급제를 버, 과수, 채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업·농촌의 발전과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추진으로 로컬푸드 농민가공센터 건립,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건립하고 밥상꾸러미 사업도 무농약 이상 경작 공동체, 단체 등에 지원한다.

중국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남 동부권 정서 통합을 위한 광역 버스체계 구축, 인근 4개 시군 생활체육 교류도 추진한다.

도시를 살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

도시를 살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

순천 '9988 씬터'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최우수상

농촌 노인들의 행복추진소 역할 36곳 운영...내년 52곳으로 늘려

순천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9988 씬터'가 최근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9988 씬터'는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사시라는 뜻으로 노인들이 홀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시책이다.

시는 현재 먼 지역을 중심으로 '9988 씬터'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2개소, 2020년 100여 개소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씬터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건강도 지키고, 숙식까지 해결하는 1석 3조의 '어르신 행복추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모한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는 복지사업을 발굴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갯지렁이 갤러리 인기

순천만정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순천만정원 갯지렁이 갤러리'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순천만정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순천만정원 갯지렁이 갤러리'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황지혜 작가가 디자인한 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내에는 갤러리와 도서관, 쥐구멍카페, 개미굴 휴게공간 등을 갖춰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소녀상 첫 건립 美 글렌데일시, 조충훈시장에 감사장

외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Glendale)시(시장 자레 시난안) 일행이 최근 순천시를 방문해 조충훈 순천시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충훈(왼쪽)시장의 순천시 방문한 자레 시난안 미국 글렌데일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7월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 행사에서 전통 공연을 펼친 아고라 문화예술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사진)

방문단은 문화건강센터와 순천만정원, 순천만을 둘러보고 생태와 문화에 대한 순천의 역할상에 놀라워 했다.

자레 시난안 시장은 "지난 4월 시장으로 선출돼 순천시를 처음 방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순천시의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충훈 시장은 "역사 바로세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글렌데일시 시장 일행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글렌데일시와 문화 등 지속적 교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렌데일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있는 도시로, 일본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건립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여자만 새교막 폐사 원인 규명 정밀조사 의뢰

순천만과 여자만 일대에서 새교막 폐사가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가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에 정밀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순천시는 "새교막 폐사원인과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국립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과 여자만은 전국의 새교막 생산량의 80% 이상 생산되고 있고 종패 생산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새교막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순천·곡성)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어업인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부차원의 새교막 폐사원인 규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일보 62주년 기념 광고. '예향'은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